**교제와 나눔**

**ㆍ온라인 가정예배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예배당 예배로의 전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말씀편지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나는 그 날까지 계속됩니다.**

**ㆍ헌금:** 가능하면 매주교회 구좌로 송금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함께 봉헌하세요.

**ㆍ생일축하:** 이다솔, 김라온, 손재호, 이영숙

**\*\* 함께 기도합시다 \*\***

1)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2)확진자들을 치유해주시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3)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당 예배로 잘 전환되게 하소서.

4)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5)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

6)경제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잘 넘기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시17:1-15 월/시18:1-15 화/시18:16-29 수/시18:30-50

목/시19:1-14 금/시20:1-9 토/시21:1-13 일/시22:1-21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74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5월 17일** | **5월 24일** | **5월 31일** | **6월** |
| **예배기도** | 민명희 | 박성희 | 김종권 | 정수연 |
| **말씀일기** | 석호선 | 김영희 | 김요한 | 전소현 |
| **안내위원** |  | | | |
| **헌금위원** | 가족 중 | | | |
| **애찬봉사** |  |  |  |  |

**37-20호 2020년 5월 17일**



**“너는 내 것이라”** (사43:1)

주일예배: 12:00 각 가정

유초등부예배: 12:00 각 가정

청소년부예배: 12:00 각 가정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잠시 휴강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63-139 2225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부름/Eingangsgebet 유 24-25 | | 찬송/Gemeindelied 14장 주 우리 하나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 |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30번 | | 찬송/Gemeindelied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 | 기도/Gebet 민명희 교우  말씀일기/Bibeltagebuch 석호선 집사  찬양/Chor ‘주의 친절한 팔에’ 찬양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시편 17:1-15** | | 설교/Predigt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설교자  찬송/Gemeindelied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봉헌/Kollekte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 | 교제/bekantmachung  주기도송/Vaterunser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축복/Segen 손교훈 목사  **\*\*교회 구좌**  Baek, Han-Jin Kim  Bank: Deutsche Bank PGK Düsseldorf  IBAN: DE29 3007 0024 0598 1931 00  BIC: DEUTDEDBDUE | |  |  |

**<설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시17:1-15)

누군가 “시편은….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했습니다. 독자들은 여러 시들을 통해 자신과 다르지 않은 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고, 비록 연약하여 때때로 흔들리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 승리를 곳곳에서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부제가 달린 오늘의 시편 17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의 인간 승리, 그 영혼의 해부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호소에 자신의 영혼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토로하며 의인들을 옹호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본 시편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16편과 유사합니다. 다만 16편이 하나님에 대한 내면적 신앙고백의 선언으로 나타난 반면, 17편은 그러한 신앙 생활 때문에 봉착하는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의뢰하는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또한 6절에서 8절까지는 자신이 과거에 구원받은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의로운 자를 압제하며 괴롭히는 악인의 횡포를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낱낱이 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시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소망을 가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인은 밤에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해 주시기를 바라고(3), 아침에 깨어나서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15). 고대 유대인들은 밤이 하루의 시작이었기에, 시인이 밤에 자신을 감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정직하고 의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밤에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감찰하셨을 때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먼저 마음으로 결단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아무런 결단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낸 후에, ‘주님, 제가 최선을 다 했는데, 그래도 이것 밖에 안 되네요’라고 말하는 것과, “세상이 너무 악해서-너무 어두워서 내가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능하지도 않구요” 하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것과는 그 삶의 질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죄인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그 의를 따라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3)고,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4)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5)도록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생명의 길 걷는 중에, 잠들 때나 잠깰 때 주의 얼굴 뵈옵기를 원합니다.

후회하는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그 형상을 볼 면목이 없지요. 후회로 가득한 인생을 산 사람은 시인처럼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저 “나나 잘하자, 그래, 나나 잘하자” 그 정도로 끝내고 말 것입니다.

사실, 시인이 자신의 의로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려고-하나님의 의를 의식하며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자신을 정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절실함의 크기만큼 인간은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눈길을 의식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끊임없이 주의 길을 선택하며 인생 길을 걸어 온 시인. 그러나 그 인생 길이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길, 하지만 그래도, 결코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길, 그 길을 갈 것이고, 언제나 주의 얼굴을 뵈오리라 하는 자세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42:5) 욥도 고백한 바 있듯이, 고난도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길은 곧 주의 얼굴을 날마다 뵈옵는 것입니다.

본 시편에는 사람의 육체에 비유하는 생생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8절 말씀은 너무 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 같이 지켜달라”는 말은 영어로 “Keep me as the apple of the eye”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좋아죽을 때 사람들은 “You are the apple of my eye.”라고도 하죠. 우리식 표현으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당신” 뭐 이런 의미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아라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러한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를 끝마칠 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하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거야!’라며 결심하는 삶을 사십시다. 무턱대고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기로 결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기특하게-예쁘게 여기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인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애원하는 것은 단순한 보호를 위한 표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영적 교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강력한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의 불의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어 오직 자신의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14) 데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러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느라 겪게 되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만을 자기 만족으로 삼고, 인생길을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이 또한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